

- 1 在日僑胞의救靈
- 2 祖国統一의實現
- 3 韓・日兩國의和解

벤데고스데란 무엇인가 — 內面狀態의 變革 —

六月을 맞이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교회의 세계가 경축일《벤데고스데》주일을 맞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상상하고 여기에해설을 하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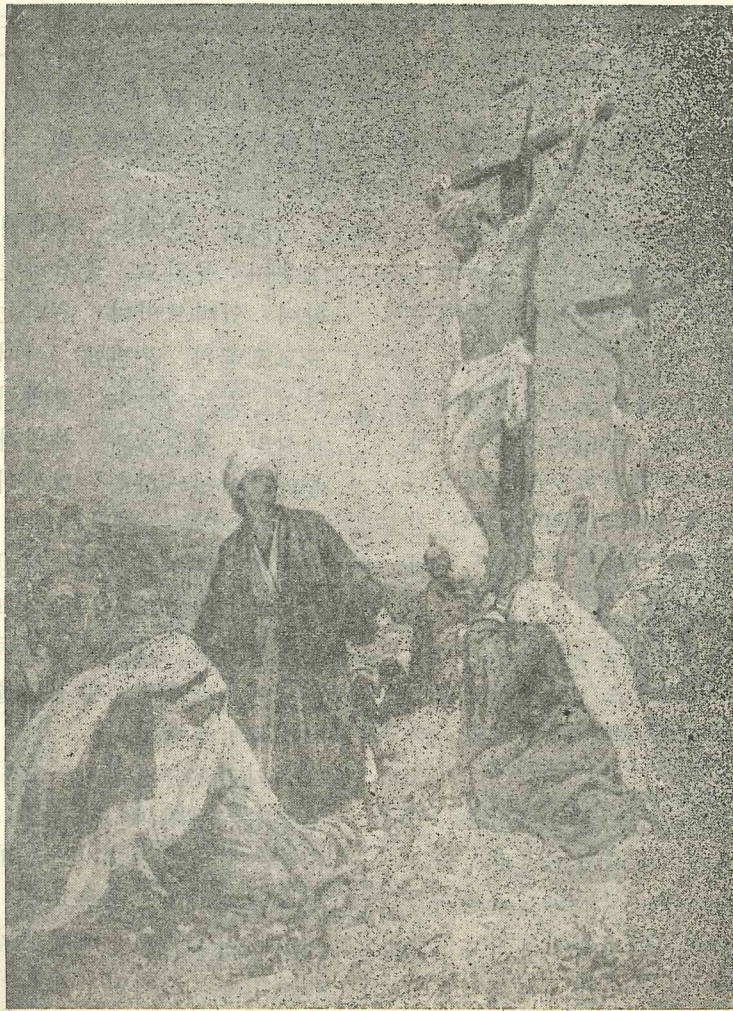
성경 로마인서 8장 9절에 보면《마지막날에 너희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아니하고 영에 있으려니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아니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믿는자의 속에 거하신다는 말인데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

을 믿는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포용하는것이라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간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내면상태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결이란 것인데. 죄의 성결이란 것은 성령의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의 역사로 죄의 성결을 받지 못한자는 성경이 말하듯이 육신그대로있어서 변혁을 체험하지 못 한자인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자가 되도록하자.



南北統一은 우리의 念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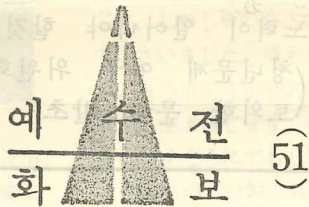
어느社會가 幸福할 것인가 (4)

한 절 하

통일에 앞서서,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政界는 정리되어야 하고 안정을얻어야 할 것이다. 먼저 非民主主義的 '유토피아 社會思想者' 들은 스스로政界에서 물러가라 그대들은 우리의 자유 사회形成 途上에있어서 암적 存在인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同僚들이 있는 社會主義 세계에로가면 되지 않는가! 자유와 노예 두길사 이에 中立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사회 각 분야를 우리가 다 논할 紙面도없고 필요도 없다. 우리 南韓社會에 있어서 각 분야가 다 '스스로 설' 수있어야통 일 되는 한국에 있어서도<스스로설>수 있을 것이다. 言論機關들이 정권에 굴하지않고 또한 돈에 매수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통일되는 한국에 있어서도 '스스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종교 단체들이 정권이나 기타 어떤 권세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통일되는 한국에 있어서도 '스스로설' 수 있지 않겠는가? 教育界가 民主化되어 '스스로설' 수 있어야 통일되는 한국에 있어서도 民主勢力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警察도 民主化되고, 司法界도민주화 되어야 한다. 문화의 각 분야가 다 마찬가지다. 각 지방의 自治制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수한 사회 단체들이 민중의 생애 뿌리박고 '스스로 서야' 한다. 이와 같은 政權과 金權의 위협 내지 買収에 속하지 않을 自立的인 社會 單位들은 국토의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民主勢力을 구성할 것이요, 自由 韓國 건설의 기초가 될 것이다. 국토 통일에 대한 나의 비전은 한 마디로 말하여 다음과 같다. 국토 통일에 앞서서 먼저 自



이 그림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가 조소를 받으시던 기록을 그린 것이다

예수는 배역한 제자들에 의하여 팔렸고 많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때 탄식의 말씀을 남기셨다. <막 14: 34>

예수의 운명하기를 기다리던 병정들은 예수의 유품을 제비로 나누었고 길가던 행인들은 예수의가르침을 받았던 자였으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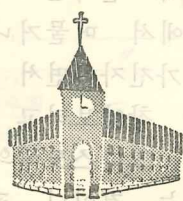
나를 구하라" 고 조소를 했다. 엄숙해야할 장면에서 인간들은 치욕적인 언행으로 경박한 본성을 들어내고 말았다.

과연 "十字架의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것이되고 구원을 얻을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도 보지 않았고 예언자라고도 생각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왕" 이란 명패를 부쳤다. 옆에 달린죄인도 그를 저주했다. 예수의 십자가는 과연 저주 받을 형벌이었을까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인 사실을 알아야하리라.

由 韓國이 이루어 저야 한다. 그리고 이 自由 韓國이 통일되는 한국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는것이다.

(長神大 教授)



各 教会 消息

- ◎李宗憲牧師님은 布施교회를 사면하시고 西南지방 오리오(折尾)교회에 전임하셨다
- ◎布施교회에서는 개혁파신학교에 유학중인 金在述목사님을 피서어 집회인도를 받고있다

教会의 社会的 責任이 란

— 國家・民族間에 正義實現 —

교회에 사는자의 사회책임이란 문제를 생각할때, 성서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사회사상사에 의하여 보아야 하겠고

한편 교회사에서 더듬어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결코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간단한 용어로 정리한다면 구약에서는 국민적정의의 실천이 강조되었고 신약에서는 인류애의 폭 넓은 실천이 강조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다시 교회 사에서는 지상천국적인 교회집단을 중심으로 전개해 오다가 근자에 급격한 변천을 하고 있다

교회에 산다는 사람은 자기죄에서 구속받은 감사와 감격을 같은 구속 받은 자들과 함께 찬송과기도의 예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넘겨진 것이 사회관계인데 거기에 더욱 적극성을 표현한것이 사회책임에 이를줄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문제를 세계교회의 공동과제로삼고 세계교회대회 혹은전문 분과 집회에서 각종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성을 일우지 못하고 공전하는 경향이 있어보인다. 우리는 재일교포들의 문제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책임감과 사명과 활동이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너무 각박하다면 아메리카 흑인문제를 신앙양심에서 육박하고 있는 킹그목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배울바 없지않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태에 교회가 책임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으킬수 없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동죽을 위한다는 바울에게 배워 각자의 처해있는 지역과 사회와 집단과 개인 접촉에서 최선의 노력이 일어나야 할것이다. (청년문제 연구 위원회에서) 토의한 문제 발초

教会에 사는者는 聖經을 읽으라

온 갓 活動의 源泉은 聖書

교회에 사는자는 우선성경을 읽어야 할것이다. 맑스와 레닌의 사상등을 추종하려는 사람들은 그 논설을 열심으로 읽는일에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속을 받고 새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 중 기독교 청년들은 성경 읽는 일을 부지런히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언어도단의 일이다

혹자들은 성경이 재미없어서 읽지 않는다고한다. 성경을 소설이나 만담같이 생각한다는것은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재미 여하로 읽으려하면 그 생각부터고쳐야 할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속하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다. 그 구속의사실을 구체

적으로 이스라엘민족 속에 나타낸것인즉 그 구속의 역사를알아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읽는 사람의 지식정도 전문적인 학문관계에 따라 각도와 관심이달라질수는 있으나 성경이 계시하려는 근본원리는 다른것이 아닐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엽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파악에서 버서남이없도록 읽어야 할것이다

교회에 산다는 사람들이 분위기에서 머물거나 자기 문제를 가진자이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이탈되는 것이다. 교회이해를 사교장으로나 민족적분위기

접촉처로나 알고 자기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서에서 해결하지 못한자는 교회의 어떤 운동이나 활동에 있어서라도 힘찬 활동을 할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모든 문제는 성경을 열심으로 읽어 해답을 받도록 하자 <西宮教会 윤중은 목사>

南北統一의念願에서

難局打開의 길을 찾는다

— 6.25.15 주년을맞이하어 —

금년은 우리민족이 일제이 최사슬에서 벗어나 독립의 길을 걷게된지 20년이 되는 해다. 해방후 탄생한 아이들이 어른노릇들을 시작할 즈음이다. 그들은 일제의 야수적 탄압과 학대의 경험이 없이 자라왔다. 그들은 두번 다시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그 원인 제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영영한 번영과 행복을 이룩할 길을 굳게다지는 노력을 하고있다

우리는 그동안 6.25라는 동족상살의 비참한 전쟁을 경험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이다. 해방직후 탄생한 아이들의 다섯살혹은 네살 세살 두살때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다시말하면 어린때 어린아이들의 어릿곳은 싸움이였다면 잊을수도 있는 일이라 하리라만.....

우리 민족은 그때에 한국군 19만 명을 비롯한 민간인 47만, 공산군 180만 전체인 1.100 만을 헤아리는 처참한 결과를 비쳐냈다. 자기 집에 기른 고양이나 도야지나 개 한마리도 아껴오던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방안에 잘못된 설계자들의 제책에 걸려서 개죽음을 하고말았다. 한편 우리 자손들이 집세기를 받고 갓신을 신고 누덕 옷을 입고 때때 옷을 입도록 모였던 재산이 뜻 없이 타 버리고 썩어버렸다. 교회로서도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막대한 교회시설을 손상 당했다. 누구의 때문이며 무엇때문이였을가 생각하면 가슴이 뜯기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통일의 방안은 자주적인 것으로 확립된바 없다. 정치협상이 못 된다 할지라도 경제 자원 교류와 문화공동연구거나 사공료교환 통신거래쯤이야 할수 있는 일들인양 싶것만.....

언젠가 휴전선 완충지대에서 일가 친척들이 가끔 면담하도록 하자는 의견들도 어느 아침 안개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피차간 양심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는 남북동포 전체가 정신혁명을 받아야 실속있는 통일이 실현될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한다. 우리는두번 다시 전쟁이란 것에 의한 민족상살의 비참극을비저내는 일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한다. <나>

台灣 教会에

問安使派遣

자유중국 대만장로교회 에서는 금년으로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를 받은지 100년을 맞이했다. 6월17일부터 대북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 같은 캐나다장로교회의 선교를 받고 있는 재일 대한 기독교회 총회에서는 다음 세분을 대표로 파견하기로했는데 여권 관계로 16일에비행기로 출발하여 약 두주일간 각교회를 방문하면서문안을 전하리라 한다.

김덕성 (福岡教会 牧師)

김경찬 (神戶教会 牧師)

유석준 (京都教会 長老)

新明學校의 貢獻

京都교회에서는 지난일요일 낮 예배후에 신명학교 (교회경영야간민족학과전수학교)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해방후 온갓 곤란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졸업생을 내어성인교육과 교회발전에 이바지했는데 지금은 일본인들과 원거리에서 입학할 지원하는자가 많아져 그발전에기대가 자못크다

真理が自由にさせる

李 仁 夏

イエスが、ローマの総督ピラトの前で審問された時真理について証しをした。その時ピラトは真理とは何ですか？と深刻な問いかけをした。

1、わたし共が真理と考えているものが実にあいまいである。子供にとって真理は初めて接する父母からくるものである。父母の言う事が全て正しい事であり真理なのである。ところが小学校に入る段階になると真理は教師からくる先生の言う事が絶対的真理として受け取られる。

やがて時が来ると人間は外の権威から来る真理に反抗し自分で真理を探究する。それを学問の世界に求め学問がイコール真理であると思いつく時がある。しかし学問を修めた人に向って真理が何であるかと問うて、確信のある返事を得ることはまれである。多くの人は無関心に生きてくる。

2、わたし共が聖書を開いて驚くのは真理に関するイエスのだいたんな発言である。イエスは自分の教えが真理であると言っていない。自分自身が真理である（ヨハネ14:6）と言っている。歴史に現われた偉大なる教師の中で誰がこんな事を言っているか。イエス御自身が真理であると言う事は理解に困難なことである。

しかしながらもしもイエスの前で人間がその偽りを暴露されるとすれば、イエスが真理でいますからではなからうか。ペテロはイエスの前で「主よ、わたしから離れて下さい。わたしは罪深い者です。」と告白している。ペテロは人間の奥深みにあるものがさらけ

出される思いを持った。人間はギリシャの哲学者によれば7つの仮面をもっていると言われたが実際には7つを70倍する程の偽りある自己をかぶって生きている。（ニーチェ）この人間の嘘が人間を不自由にし、それが人生の重荷である。人間は本当の自己が見せられる事を恐れている。こう云った人

間の心を開いてありのままの姿をさらけ出される時人間は自由人になれる。人間は自分の偽りを審かれるだけでは自分を開かない。赦しと愛をもつ人格になれないことは本当の自由を得る事が出来ないイエスが真理であるのはこういった人格的出会いを通して知らされる。（川崎教会 牧師）

私の入信記

川西教会 李 昌 雨



りすぎた。又終戦後には信徒達がどんどん帰国し、その数も非常に小敷になった。そして皆が散られてバラバラに住むようになり私もその後は空白の時代を持った。「神は凡てのことを相働きて益とならしめ給う」これらの戦歴を通して大阪北部教会を知り礼拝に出

席するようになった。所で当時国語が解らず説教をきくにも又特に讃美歌をうたうにも非常に困りました。自分が馬鹿に見えて恥しく思いたまらぬ気持ちになった。それでも何とか頑張って出席した…が満さ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しかし考えて見ますと満されなかったことは国語が理解出来なかったことよりもむしろ私のまだ救われていない生来のままの人間であったからであり聖霊の喜びと平和と愛に満ち溢れるめぐみに与っていなかったからと思うのです。

或る日曜日の夕拝の決心の時に兎に角不思議にハッキリと主は私に迫って来られました。今迄の歩んで来た所の何んの変化も希望もない暗い冷たい罪の生活を捨てて此のめぐみの時に悔改めて救いに与かりなさい」との御言でした。所がもう一つの声がさきやきました。それは実に罪の声でした。それは明らかに拒否の声でした私は本当に悩みました心の中で二つが葛藤しているのが解りました。何故だろう、自分にまだ罪えのたきれないものがあつたからでしょう。時はどんどん過ぎてゆく、めぐみの招きは過ぎてゆく、「火の中で苦しんでいる富者とアブラハムの所に抱かれていたラザロを思い出した。私は本当に真けんでした。神も魂の救のために一生懸命でした。私は増々深く落ちるようでした。もう駄目なのかと思いましたが、しかしその時主は私を捕えて下さいました。捕えられたのです。もう主にまかせるほかありません。主よ信じます。私は貴方のものですどうにでもして下さいとまな板にのつた鯛の気持ちで一切をまかせ従いました。今迄の不従順の心は砕かれ疑惑の雲は吹き払われ、誰れにもはばかることなく主に委れました。主はおどろくべき御業をなし喜びと平安を満たして下さいました。以後信仰生活を守る

うちに、理解出来なかった国語もいつしか解らないながらも教会との接触を多く持つことによって少しずつ解るようになりました。私は国語が解らないことから以前日本の教会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日本語で礼拝するのでから理解は出来ました、しかしそのまま続けていたとするなら、今日の自分の姿はどんな姿となっていたでしょうか、国語のために少し遠廻りをしたような感じをするのですが、おそらく韓国教会に出席することをやめれば、国語は今でも全く解らないのではないだらうかその後北部教会で御奉仕をさせて頂いて参りましたが主は再び私に招きの声をかけて下さって使命に生きるようにと導いて下さいました。しかし正直な所、旧約のモーゼの言の如く（私はモーゼと比較にもなりません）適任でない言がない、権威がない、能力と弁舌がない、適合性がない、世の成巧がない、民が受け入れない者です。私の低い信仰生活に於いてこれは重荷でした。にもかかわれず主は私にその任を負せました。私は祈りました。そして応えるように祈りました。主は私に能力を与えて下さいました。御子を我が内に示してくれました、そして主は私に云わせました「福音を宣伝えずば我は禍害なるかな」と…主は私の一切です。

「わたしを信じる者は、またわたしのしているわざをするであろうそればかりかもっと大いなるわざをするであろう」

(川西教会 牧師)



1965年度

夏期全国高等部修養会 案内

例年の如く、本年も次の如く高等部修養会が開かれますので、案内を致します。

記

日 時 8月3日(火) 受付10時より } 三泊四日
8月6日(金) 午後2時まで }
場 所 広島ユースホテル
広島市牛田町神山(電話広島21局5343)
費 用 3000円 (会費・宿・食費共) (交通費はプール)
主 題 ミ教会に生きるミ
聖 句 エペソ1:4 マタイ16:18 コリント前12:27
小題・教会の選び・教会の基礎・キリストのからだ
主 牧 鄭 寿 千 牧師 (堺教会)
講師(主題) 洪 永 基 牧師 (下関教会)
講師(一年) 金 徳 成 牧師 (福岡教会)
(二年) 金 元 治 牧師 (西成教会)
(三年) 羅 曾 男 先生 (白頭学園)
特別講師 田 永 福 牧師 (京都教会)
主 事 金 安 弘 先生 李 国 姫 先生
(ホテルへの交通機関)

広島駅前百貨店から広島郊外バスで深川経由可部又は戸坂行に乗り。牛田新町(ユース、ホテル前)で下車して下さい。(バス約7分乗車) (歩5分)

◎各種礼拝のテキストはガラテヤ書を使用します。ガラテヤ書を十分に読んで下さい。

八月 高等部修養会プログラム

3日(火)	4日(水)	5日(木)	6日(金)
6.00	起床	〃	〃
6.30	早天祈禱会	〃	〃
7.00	朝食	〃	〃
8.00	歌いましょう	歌いましょう	歌いましょう
8.30	教会に生きる	教会の基礎	キリストの体
9.30	(全体)洪 牧師	学年別	学年別
10.00	分団討論	〃	〃
11.00	受付	私の人生回想	反省会
12.00	遠	田永福 牧師	
1.00	中食	中食	中食
2.00	分団オリエンテーション	足	水泳大会
4.00	分団行動	市内見学	(プール)
4.30	風呂	〃	〃
5.00	夕食	〃	〃
6.00	夕食	〃	〃
7.00	開会礼拝	教会の選び	最後
8.00	かたり歌う夕	分団討論	の夕
	(キャンプファイヤ)	9.30	

夏期高等部修養会

会場への交通案内

広島は中国地方の中心的な都市であり観光都市でもあるので交通の便は、非常に便利である。

関東、関西よりの方は国鉄の各駅で、広島までの乗車券を買う。
交通費は 東京―広島 960円(学割)片
急行券 300円 大阪―広島 580円(学割)片 準急行 100円 名古屋―広島 670円(学割)片

使用に便利な列車は 東京発前日の14:00 横浜14:25 豊橋17:55 名古屋18:52 岐阜19:14 分発の大阪行急行よど号で大阪まで来て(大阪着 21:30分着) 大阪より準急なうらにて広島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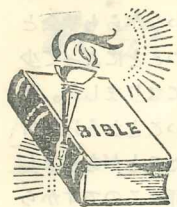
大阪よりは 前日の京都 23:05 大阪 23:30 神戸 0:23 分発の準急なうら号 広島着 6時51分

当日は大阪発 7:30分 神戸 8:01分 発の急行宮島1号広島着 12時50分

九州方面は 交通費門司―広島 440円(学割) 急行 200円 準急 100円 下関発 6:55分―広島着 10:35分 準急やしろ

前日 八代発 16:06 熊本 17:24 博多 21:25 小倉 22:59 広島着 5:41分着

又夜行列車を使用出来ない人は門司発 7:32分 広島着 13:56分に乗車出来る様になると良い。



愛は実践である

第1ヨハネ47-12

聖書

西成教会 金元治 牧師

1. 愛は神に属している。神の本質は愛である。(ヨハネ3:16) 愛とは、私が愛しますという言葉でなく、実践である。言葉だけでなく、私たちはもう自分の程度を越えた程の愛を施した事になる。(ヤコブ1:19) しかし現実には多くの社会の不安と混乱や悲惨は皆この愛の欠乏から来るのである。神が愛であるというのは、神御自身がいわれたのではなく、愛を受けた聖徒ヨハネが感激して神を定義づけた言葉である。それは愛を身をもって実践した神をよく現した言葉である。愛するとは私の行為に対して相手が云う時に使う言葉である。即ち自称ではなく他称である。(ルカ6:35)

2. 愛は互いに愛し合う時にはじめてわかる。愛とは定義でも教理でも理解出来る様に思うけれども、それは間違いである。だから

パウロは「たとい私が、人々の言葉や御使い達の言葉を語っても愛がなければ、やかましい鐘や騒がしい饗鉢と同じである」といったのである。(第1コリ3:13) 互いに愛し合う事は、私達が本当に神を知ることである。(ヨハネ13:14) 私達は神が判らないとか、信じられないとかよく云う。それは実は、愛を知らないからである。子を持って初めて親の愛を知るといわれるが、之も自分の子を育てる苦勞をして見てはじめて親の苦勞を知るからである。それまでは観念的であって、實際的でないわけである。真剣な祈りは言葉にならない。それは祈りかたを知らないからでなく、切に願うからである。(ロマ8:26) それと同じ様に本当の愛は、愛する感じさえ、全然もたないものである。お互いがその様な愛の実践をする時

に、神がわかって来る。

(ロマ5:8)

3. 人は神を見たいと思う。見えない神は存在しないので、結局神はいないという。それは、キリストの犠牲の愛を受けて兄弟を愛する実践に移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愛は神に属するもので、神は私達に愛する能力を与えている。その愛を自己にのみ用いると、自己を滅ぼす我欲となり(ロマ16:33) 他人の為に用いる時、神の愛が判ってくる。(ヨハネ13:34) 神をぬきにして愛の実践はなし。人はヒューマンイズムを説くが、人には愛はない。故に人は憎み合い、主御自身の犠牲により、神の愛が私達に現われたのである。愛は祈りによって実践出来る。

(エペソ4:32)

生きる意味も価値も発見出来るものと信じる。本当に私共の総会もじっくりと腰をおちつけて、「証人」としての伝道を考へるべき時になったと思える。青年会の伝道婦人への伝道労働者への伝道総ての人々への伝道が、具体化したプログラムとなって、働かざるに示されねばなりません。いつまでも

内部強化とか確立とかを目的とした集会では、何故か心もとないものを感じる。総会は少人数の指導者だと言はれる人々のものでなく全信徒のものであり、神のものである。もっと力強く血のかよった伝道導くことの出来る総会であってほしい。又私共も伝道と言うことに心してとりくみたい(寿)

光明園訪問案内

関西地方連合教会
青年会々々長

林 包 球

主恩中 貴教会及び貴青年会の発展を祈ります。

この度、関連教育において、春期修養会案内書にすでに報告した邑久(おく)光明園家族教会への訪問を別記の通り行なうことに決定致しました。

邑久光明園は岡山県邑久町の長島にあり、らい療養所の1つで約970人の療養者がおり、殆んど関西地方の人達です。その中で私共の同胞が130人程います。日本基督教団光明園家族教会があり、その中には同胞の受洗者が40人程いるのです。そして教会の中では同胞のグループとして養信会があります。

ところでこの訪問はいわゆる慰

問の為に行なうの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また連合聖歌隊のメンバーも参加しますが、単に聖歌隊の奉仕が中心になるのでもありません。境遇の違いこそあれ、共に主を信ずる者どうしの人格的な交わりを行なう事がその目的であります。私共がらい病者の事を考える時、単純にみじめきのみを考えがちではないでしょうか。けれども、その人達とじかに「話合うことによって互の壁を取除き理解し合う事ができる事と、交わりによって恵みを共にわ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事を確信するものです」。各青年会員の参加を呼びかける次第であります。

六月・カレンダー

「キリスト者の人生は、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の人生である」と明言しても誤りではないと思う。私の「生きる」その場で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生きている事実こそキリスト者の総てだと思える。しかるに、私は証人たり得ない。自覚して生きつつもなほ、証人たり得ないと言うのではない。これならば、キリスト者として少しは高度な悩みである。キリストの証人であらうとする自覚すらなく、キリストを忘れても、当然の様に「生きる」ことの出来る私の人間性に問題を感じる。今日、日本に60万人だと言はれる韓国人の中に2000人と言う極少数のキリスト人者が生きている。キリストの証

人として生きて居るのなれば、身近な隣人に救いの喜びを伝えることによって、証人たり得るでしょう。故に2000人が4000人に、4000人が8000人となって、一人が一人に伝道して行く時少数であっても少しも困ることはない。しかし全部が全部と言うのではないが、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生きる」自覚をすら持つことがないので、キリスト者としても成長して行ない人間としても味のある人間たり得ないのである。真のキリスト者は無力でもなく弱力でもないと私は確信する。価値なきが如き、初代の使徒達ですら、自覚をなくし目的を忘れた時には、ユダヤの人をおそれておじまどっていたが

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自覚して立つ時、全世界を敵にまわしてもなほ、立ち得たのである。あの力、能力は、今日の私共に、聖霊を仲保として、あり得るのである。

聖霊が先きで、自覚があとか? 自覚が先きで、それを聖霊が助け給うのか? おそらくどちらがあとで先で言うのではなく同時に私の内に働きて益きとなるのであらうまず私共は、危機的な要素を持ってこの世で「私の証人でありなさい」と言うキリストのみ言に従って立ち、「生きるも死ぬるも」キリストの証人であらうと自覚するのがキリスト者たるもの急務である。

私共の人生にとって、意味も価値も見いだせない様な今日、キリストの証人であることによって、



前年 婦人連合会主催で、光明園を訪門せる 鄭寿千牧師一行と、家族教会の方々 (家族教会人口にて)

信頼できる

新しい聖書!!



新改訳

新約聖書

◆ 日本聖書刊行会発足

去る四月六日、「日本聖書刊行会」は正式に発足しました。今後

同会が新改訳聖書の発行母体となります。なお、発売には「いのち

のことば社」が当たります。

◆ 厳正・忠実な翻訳

新改訳聖書は、ギリシャ語原典

の持つ意味を現代語に再現した画

期的な翻訳です。これには、三十

六名の福音的聖書学者が参加し、

できるかぎり厳正、忠実な翻訳を

しました。

◆ 読みやすい表現

原典の持つ大衆性を考慮し、翻

訳におおて忠実さを保ちながら、

読みやすい表現ということに特に

留意しています。最終的に、「品

位のある現代語を」という願いか

ら、第一線の国語学者三名の綿密

な検討を受けました。

◆ 正確な引照と脚注

読む人に、神から与えられたみ

ことばが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

豊富な引照と正確な脚注がつけら

れています。

△ 新約は九月発行

日本聖書刊行会 発行

東京都新宿区信濃町六番地